

서용선, "시선의 정치"

1. 전시개요

제 목 : 서용선 "시선의 정치"

일 시 : 2011. 3. 9(수) - 4. 10(일)

(오프닝 2011. 3. 9 (수) pm 5:00)

장 소 : 학교재갤러리 전관

출품작 : 총 42 점 (평면 36점, 입체 6 점)

2. 전시소개

학교재갤러리에서는 2011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용선의 개인전 '시선의 정치' 를 연다. 단종, 한국전쟁, 중국신화, 도시풍경 등 인간과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이방인으로서 바라본 서구의 도시를 본격적으로 조망한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산업화의 물결 속에 급속한 변화를 겪어온 도시와 도시인의 면면을 지켜보았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이 도시연작들을 통해, 작업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의식과 세상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드러낸다. 이전의 도시연작이 서울의 산업화 과정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 그의 시선이 닿는 영역은 서구도심 속 역사의 현장과 이방인들의 삶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해외의 대도시들을 방문, 거주하며 바라본 도시의 유형과 인간 군상의 모습,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양태와 보편적인 속성 등을 이야기한다.

본관에서는 뉴욕의 지하철 풍경을 담은 작품들과 회화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오브제를 전시한다. 신관 1층에는 호주 멜버른에서의 작업이 그리고 지하 1층과 2층에는 베를린과 체코에서 머물며 작업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신관 야외에는 4m에 달하는 설치오브제 2점이 전시된다. 서용선이 바라본 동시대 도시에 대한 다양한 화면은 관람객에게 이 시대의 도시와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3. 전시내용

시선의 정치학- 사람, 도시, 풍경 뉴욕, 멜버른, 베를린의 도시풍경

이번 전시에서 서용선은 서구도심 속 역사의 현장과 이방인의 삶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가 제시하는 세상 곳곳의 역사와 현장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가 바라본 도시 속의 사람들, 지하철 그리고 건축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함께한 사람들의 표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의 작품은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이 만드는 여러 종류의 풍경이기에 그 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때문에 그 메시지가 구체적인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선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다.

서용선은 2000년대 초부터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대도시를 방문하며 각 도시의 도시별 유형과 인간 군상을 다양하게 조망했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은 2003년과 2006년 여름 두 차례의 베를린 방문 시 작업한 역사적 현장을 다룬 작품과 2010년 여름 호주 멜버른의 카페와 거리를 주제로 한 작품, 2010년 가을과 겨울 뉴욕에서 거주하며 지하철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도시에 머물며 그는 관찰자이자 이방인의 시선으로 각 도시를 그만의 색깔과 언어로 풀어냈다. 베를린의 작품에는 역사적 건축물을 표현하기 위해 구조에서 더욱 구축적인 느낌을 살렸고, 멜버른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적 색채를 포착한 호주만의 색깔을 풀어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뉴욕의 100년이 넘는 지하철의 음습한 모습은 짙은 먹색과 그리드로 표현했다.

이방인이 바라본 서구의 도시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도시에서 살아온 서용선은 개발되고 변화하는 도시의 관찰자로서 도심 속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조화스럽고 불연속적인 삶의 모습들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다. 그는 80년대 말부터 도시의 풍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선택해왔다. 이전의 도시연작이 산업화, 기계화되는 서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서구도심 속 역사의 현장과 이방인들의 삶으로 확대되었다.

멜버른에서 작업한 그의 도시모습은 풍경으로써의 도시만이 아니다. 그는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조망한다. 작가는 멜버른에 머물며 그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인들의 절반은 아시아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작품<케이크 고르는 남자>는 작가가 묵었던 도심 뒤편의 작은 호텔 안에 있는 카페를 배경으로 한다. 그 호텔에서 오가며 만난 동양 사람들을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본 도시의 단면은 강요된 스펙터클의 도심 그 이면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는 이방인들이다. 그는 화려한 거리가 아닌 도심이면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고 관조적으로 표현한다.

도시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다.

그의 시선은 건축물, 교통수단 등 도시인의 일상이 펼쳐져 있는 현장에 닿아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의 지하철과 독일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는 도시의 역사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이 함께 한다. 서용선이 묘사하는 인물들은 도심에서 개개인의 기호와 정체성이 상실되어 익명화된 사람들의 생기 없는 모습으로 그 속에는 타인과 나누는 시선의 교차도, 타인과의 미세한 정서적 교감도 감지하기 어렵다. 이렇게 수많은 대중들이 군집하여 살며 각각의 정체성과 개성이 획일화되는 도시의 모습을 암시한다.

2010년 하반기를 뉴욕에서 머물며 작업한 작가는 특히 핏줄처럼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하철에 주목했다. 뉴욕의 지하철은 견고한 도로체계를 갖춘 현대도시의 상징이다. 그가 묘사한 지하철은 획일화되고 계량화되는 도심 속 인간들을 반영한다. 때문에 색채의 강렬함과는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은 박제되어버린 듯 냉랭하

다.

지하철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핏줄과 같다.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피의 흐름 속에는 역시 사람들이 있다. 도시인 모두는 쇠로 만든 지하철을 기다린다. 그 시간들은 단지 우리의 몸을 싣고 달리는 운송차량, 움직이는 공간, 공기저항을 뚫고 양가닥으로 뻗쳐진 철로를 이탈하지 않은 채, 햇볕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땅속을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숨가쁘게 달려가, 다음 정차역에 서는 동안의 그 시간들이다. 우리들은 다음 장소로 우리의 몸을 옮겨 가기 위하여, 쇠로 무장된 힘의 속도 속에 다음 장소를 위해 그 공간속에 있을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감각을 밀어 넣는다. (작가노트 中)

이번에 전시된 베를린 작업들은 2003년 2006년 여름 두 차례의 독일 방문시에 제작된 것들이다. 그가 독일문화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1년 독일 함부르크 인터내셔널 아트 워크샵에 방문하면서부터이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담겨진 역사적인 건물들에 관심을 가진 그는 수차례 독일방문 이후 독일문학과 예술에 흠뻑 취하게 되었다. 독일에 머물면서 가로 5미터 세로 4미터에 달하는 대형 린넨천에 제작한 작품<부관덴부르크 문>속에는 독일의 역사와 흥망, 분단과 통일을 상징하는 건축물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곳은 과거 동독과 서독의 경계지로 우리나라의 판문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 동서독 장벽이 무너진 후 이제는 통일된 독일의 평화를 상징하는 문으로 기념 건축이 된 문 앞에서 작가는 도심 속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 도시와 역사의 속성을 꼬집는다.

원색과 그리드의 구성이 전해주는 시각적인 긴장감

서용선의 작업세계에서 ‘구조’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구도가 일반적으로 미술교육에서 전수해 줄 수 있는 외적인 드러나는 요소라고 한다면 구조는 화가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스스로 터득해낸, 화면 속의 내적인 뼈대이다. 작가의 회화속의 구조는 격자무늬, 폐쇄적 공간설정, 색면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드를 통한 구축적인 공간분할 등 매우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 서용선의 작품은 탄탄하게 구조화된 화면구성을 토대로 강렬한 색채를 통해 시각적인 긴장감을 전해준다. 화면의 배경인 지하철, 건물, 상점 등을 묘사하는 주요한 기법은 더욱더 두드러진 그리드와 다양한 원색들의 조합이다. 여기서 그리드의 표현은 차가움과 냉정함 그리고 기계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원색은 팽창해가는 풍요로운 물질문명 속 도시의 화려함을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화면 속의 원색의 강렬한 느낌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보는 이에게 예기치 않은 불안한 시각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외되고 단절된 도심 속 인물들의 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평론가 정영목, 서용선 작품집 출간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서울대 정영목 교수와 서용선 작가의 20여 년이 넘는 우정의 결실이 맺어진다. 정영목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작가와 평론가로서, 미술계의 동반자로서 서용선의 작품세계를 꾸준히 지켜보며 평문을 발표해왔다. 이런 그의 평문을 묶은 <시선의 정치-서용선의 작품세계>(정영목 저, 2011)는 이번 전시에 맞춰 출판된다. 정영목 교수는 1953년 충북 온천에서 태어나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P.S.1(뉴욕) 프로그램,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 등 많은 평론 활동을 해온 그는 서용선의 작업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삶에 관한 철학적, 역사적 명제를 회화로 표출해보려는 젊은 지성의 힘’을 보았고, ‘화가로서의 인문적 태도와 지적 진지성’을 지향하는 작가의 자세를 보았다. 이번 작품집에서 정영목은 역사, 전쟁과 신화, 도시 경계, 치유의 목차로 나누어 서용선의 작품 세계를 정리하였다.

4. 작가소개

서용선은 195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어릴 적 그는 공동묘지 앞에 텐트를 치고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전쟁의 상흔들을 체험하며 자란 그는 잠재의식 속에서 전쟁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겨 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민족과 민중의 애환을 담은 강렬하고 과감한 필선의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서용선의 작품 속에서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 본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 있다. 1980년대 초반 일련의 소나무 회화 연작들로 알려지기 시작한 그는 80년대 중반부터 역사화와 도시인 연작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구체적 소재를 통해 회화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회화공간을 재구성 해 온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들 속에서 역사의 격랑과 그 속에 휩싸인 인간존재의 갈등을 밀도 있는 솜씨로 그려낸다. 역사의 시간에 대한 그의 관심은 도시의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 제도, 관습, 국경, 도시, 생산, 소비 등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시대의 풍경으로 주제가 확대되었다.

제1회 중앙미술대전 특선에 입상하여 화단에 등장한 이후, 서울대 서양화과 교수를 역임한 그는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전>을 비롯한 3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20여 년 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2001년에는 독일 Hamburg Pentiment 초대교수를 역임했으며, 정년이 10여년이나 남은 2008년 작업을 위해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총 30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5. 전시 대표이미지



케이크 고르는 남자
A Man Picking a Cake
2010
Acrylic on Korean paper
141.5X76.5cm



14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People Waiting Subway at 14th
Street Station
2010
Acrylic on canvas
143.5x230.5cm



25st 출구 코너
A Corner of 25th Street EXIT
2010
Acrylic on canvas
215X175cm



체크포인트 찰리
Checkpoint Charlie
2003
Acrylic on paper
each 294X163cm



프라하 총격
Gun Shooting in Praque
2003
Acrylic on paper
each 294X163cm



베를린 성당
Berlin Cathedral
2006-2011
Acrylic on linen
400x500cm

※ 참고자료

1. 전시서문
2. 작가노트
3. 작가약력

1. 전시서문

- 학교재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선의 정치학: 사람, 도시, 풍경

-서용선의 근작들-

정영목(서울대 교수)

최근 서용선은 매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직을 사퇴하고 더욱 자유로워져서 그린지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며 작가로서의 시선을 넓혀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머무는 대상과 관심 주제는 여전히 세상 사람의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종류의 풍경이랄까? 작가는 끊임 없이 인간에 관한 자신의 관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무릇, 사람이 하는 일에 정치적이진 않은 게 있을까? 서용선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여기저기에 머문 작가의 시선은 작품이 되어 우리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암시해준다. 그 메시지가 특정의 구체적인 정치성을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그린 사람과 도시, 또는 그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풍경들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으며, 애매모호하지만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려는 듯 매우 함축적이다.

서울의 삭막한 기계적 도시풍경과 조선시대의 단종에 얽힌 영월의 역사적, 정치적 풍경을 제작했던 작가는 이제 그의 시선을 외국으로도 돌렸다. 그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머무는 특정한 장소의 사람과 풍경을 그림으로써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시선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멜버른의 카페, 거리, 뉴욕 맨해튼의 지하철 등을 그린 풍경들은 매우 정치적이다. 지극히 심화된 자본주의

의 진면목을 지닌 뉴욕 맨해튼은 온갖 사람들이 모여 별의별 꿈을 다 꾸는 허상과 실존의 스펙터클한 도시 공간이기에 욕망적이다. 분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베를린의 도시풍경 또한 정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동·서의 분단, 그로 인한 경계의 통제와 억압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역사와 정치의 도시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가가 어떠한 정치적 태도나 신념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 또 알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과 마주해 스스로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는 있을 것이다. 지역과 문화와 정서는 다르더라도 각각의 도시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표정들, 하다못해 지하철의 역사와 분단의 건축물에도 역사와 함께한 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서용선은 이러한 표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가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과 풍경은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실존과 역사의 정치성을 담고 있는 대상이다. 작가는 그것이 자신의 그림에 함축되기를 바란다. 때문에 서용선의 그림은 인문학적이다. 그는 언어가 아닌 시각적인 형상으로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다.

제도, 관습, 국경, 도시, 생산, 소비 등 이 모든 것들은 시대의 풍경을 만드는데 그 주체는 역시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서용선의 그림은 매우 인문학적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시선이기도 하다. <그림 그리는 남자>로 집약되는 자화상 시리즈는 작가도 그 '사람' 속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화가로서의 자아를 둘러싼 외연(外延)과 심리적 내연(內延)이 충돌하는 긴장감이 충만하다. 표현주의적 전통과 정서로 그려진 짐승 같은 자신의 모습은 이러한 충돌과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어쩌면 화

가로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던지는 궁극적이지도 숙명적인 질문일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없다. 단지, 실존과 상황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다. 뉴욕도, 베를린도, 그리고 서울도 실존과 상황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탄다. 그 풍경의 정치성을 망각한 채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 같은 내일이 온다.

5. 작가노트

1) <췌소리> 2010, 뉴욕

뉴욕의 지하철은 189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한다.

처음 뉴욕을 방문했던 90년대 어느 날, 지하철을 타려고 들어갔다가 그 더러운 환경과 찌든 때, 계단에 앉아 있는 정체모를 표정의 사람들, 압박감을 주는 철 구조물들 때문에 도로 나온 일이 있다. 그것은 퀸즈와 브롱스 부르크클린의 사는 사람들을 맨하탄으로 실어 나른다. 사실 그것들은 맨하탄 변두리 거주자들을 도심의 화려한 불빛으로, 도심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한다.

맨해튼의 지하철 소리는 유난스럽다.

정거장에 도착할 때 내는 찢어지는 듯한 췌소리는 동물적인 감각의 위험을 느끼게 한다.

이 깊은 땅속의 공간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시사회의 집단적 위험이기도 하다.

그것은 서울의 지하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서울의 그것은 웬지 대중목욕탕에 들어서는 느낌이다. 단지 타일 같은 외장 때문만은 아니다.

어두운 공간처리에서도 그렇다.

그것은 50년 역사와 100년 이상의 차이이기도 하다.

결국 두 도시의 특징이 된다.

서울은 웬지 오사카나 동경 같은 냄새, 70년대 한일관계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지하철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핏줄과 같다.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피의 흐름 속에는 역시 사람들이 있다. 도시인 모두는 쇠로 만든 지하전철을 기다린다. 그 시간들은 단지 우리의 몸을 싣고 달리는 운송 차량, 움직이는 공간, 공기저항을 뚫고 양가닥으로 뻗쳐진 철로를 이탈하지 않은 채, 햇볕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땅속을,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숨가쁘게 달려가, 다음 정차역에 서는 동안의 그 시간들이다. 우리들은 다음 장소로 우리의 몸을 옮겨 가기 위하여, 쇠로 무장된 힘의 속도 속에 다음 장소를 위해 그 공간속에 있을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감각을 밀어 넣는다.

그 쇠덩이를 움직이는 무지막지한 전기 에너지와 그것

을 정거장마다 강제로 정지시키는 전력들은 먼 곳에서 강물을 막아 떨어뜨리는 막대한 힘, 혹은 빛과 같은 무서운 속도로 회전시키며 얻어내는 원자력발전과 같이 모두 자연현상의 변형을 통해 얻어낸다.

이 모든 자연의 힘들과 도시를 관통하는 사람들은, 정거장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지를 확인시키는 조그만 자분, 전철표를 쥐고 있다. 혹은 그것들은 이미 자기장화 되어 움직여가는 거리와 정도에 따라 계량화되어 계산되며 우리가 애써 손에 넣은 노동의 대가 속에서 체해진다.

우리 몸의 이동은 장소의 이동에 의해 계량화되어진다. 출근과 퇴근은 단지 오고 가는 문제는 아니다. 도시의 지하철을 만드는 것은 이미 자연으로부터 떨어진 도시민들을 이리 저리 옮겨 놓는 신체의 자본화되어가는 계산속에서 탄생하는 통로이며 구조인 셈이다.

일단 지하통로로 내려간 우리들의 몸은 평야를 걸어가는 야생인간의 발걸음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한 기호들을 읽어 내야한다.

그 단순한 시각기호들은 우리의 몸들을 빠르게 움직이도록 단순화되어 있다.

기호를 못 읽고 멈칫거릴수록 좁은 통로 속에서 밀려오는 뒷사람들의 방해물이 되는 거주장스런 몸동이가 되는 것이다.

이 몸들은 쇠로된 철통, 단위화 된 지하전철이 되어 빠르게 흘러가야 한다.

이미 다른 지하전철이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정거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 시간표들은 출퇴근 시간과 그 외의 시간들로 구분지어 짧게 혹은 길게 나뉘어져 있다.

도시 설계에서 도로망이나 지하철 같은 기반시설들은 도시 생활자들의 시간표들을 예측해서 잘 구성해 놓은 특별한 집단운송시설이다.

지하 운송통로의 불빛들은 방향을 알리는 사인이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리는 것 외에는 어두운 암흑 상태로 남게 된다.

그곳에는 언제나 밤과 낮이 공존한다.

낮에도 밤의 어두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곳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밤이 계속되는 공간이다.

햇볕으로 차단된 지하통로는 우리가 바빠 지나쳐야하는 심리적으로는 어두운 공간이다. 이 도시의 갇혀진 공간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우리의 신체들을 구속하게 된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는 좁은 통로 속에서

우리들의 몸을 부딪칠 수밖에 없다.

지하철은 현대인들에게 공간체험을 새롭게 하였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우리의 신체가 가고자하는 목적을 잊게 하는 공간체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목적과 장소로 이동하지만 한 공간속에서 있어야하는 승객인 우리들은 서로의 인간관계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서로간의 가치체계를 보류시킨다.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 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들은 무언극의 연극배우들이다.

누구나 자신들의 대본을 준비해야 한다.

신문을 읽거나 광고를 보는 척 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옆에 있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면서 대화를 한다.

밀폐된 공간속에서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심리반응을 동반한 행동이다.

그것은 워커 에반스의 사진에서 보이는 서로의 시선을 애써 피한 채 허공을 바라보는, 자신을 잠시나마 잊어보려는 행위다.

엄청나게 견고한 도로체계를 갖춘 지하철은 현대도시를 대표한다. 그것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고 있는 낭만적 감성의 흐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나의 감성을 긴장시킨다. 밀폐된 지하공간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의 울림은 나의 심장과 박동소리를 압박시키는 위협적 존재이다. 그것들은 소리를 통하여 내 몸을 흔들어대지만 내게는 탈출구가 없다. 그것들은 현대라는 시대전체의 느낌을 압축해서 그 불안감을 분명하게 감각을 통해 전해준다.

과거를 살아본 일이 없는 나의 몸이 현재를 살아가야하는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다.

과거에도 느꼈을 먼저 살아낸 사람들의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것은 인체가 따라갈 수없는 속도와 힘에 대한 본능적 감각 같은 것이다.

2) <설리, 보이스> 2006, 베를린

1. 영웅과 영웅승배

PLUS 슈퍼에 치약과 면도기를 사러 갔다 오는 도중, 터키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국제전화 하는 곳에 들렀다. 오귀스트 로댕과 같이 긴 수염을 기른 주인, 터키 사람은 조그만 점포를 알뜰히 운영하고 있다. 10대 정도의 컴퓨터로 인터넷 사용료 1시간에 50 cent에 빌려주고, 3~4대의 국제 전화하는 칸막이와 시원한 음료도 판매하는 곳이다.

Google에서 요셉보이스를 검색하던 중 Rudolf Steiner 사이트가 나와 2시간가량 읽게 되었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살던 집이 베를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Motzstrasse 30, Nollendorf Platz역, 나는 연지와 그 곳에 가보았다. 오후 4시까지라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카페와 책방이 운영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호리 가운데 채, 책장 어느 곳에는 을유문화사에서 출판된 번역본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의 <영웅과 영웅숭배>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동훈이가 내게 권해준 책이다.

35년 너머의 일이다. 나는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나는 영웅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책의 제목은 나로 하여금 읽고 싶지 않은, 그보다는 한가로울 때 읽겠다는 생각으로 35년 이상이 흘러간 것이다.

나는 지금 베를린의 Gerichtstrasse 23, Aufgang 5, 3층 작업실에서 이 책을 읽어보기로 마음먹는다. 7월 27일 조카 연지의 정리되지 않은 작은 방에서 <독일문학사>를 빌려왔다. 쉴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곳에 온 이래 연지는 나를 많이 도운다. 통역과 가끔 식사 만드는 일, 큰 타월을 주기적으로 빨아다 주는 일 등.

그보다 연지는 자신이 경험한 어린시절을 통해, 큰이모네 식구들과 지낸 일, 셋째이모, 현정이네, 외할머니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는 연지의 기억과 시각을 통해 가족의 구성을 다시금 반추해 보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하루 12시간씩 작업한다.

무더운 더위와 함께 나의 이 자유가 좋다. 7월에는 두세번 이메일 때문에 Potsdamer Platz 근처에 가는 일 이외에는 전시회도 보지 않았다. Neue Gallery의 <베를린-도쿄전>을 한번 본 것이 전부이다.

나는 이러한 나의 자유가 좋다.

아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어두워지면 불도 안켜고 그냥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났다. 아침은 6시 반이나 7시경, 저녁은 9시 반이나 10시 경이 나의 잠자리 습관이 되었다.

7월, 이곳은 거의 10시경이 되어서야 컴컴해진다. 한국에서 이곳에 도착한 시차의 습관을 그냥 따른 것이기도 하다.

빌려온 <독일문학사>에서 얼마간의 관심 있는 단서를 발견해낸다.

p.214-215

"외국에 미친 쉴러의 영향은 처음부터 괴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광범위하고 두드러졌다.

-쉴러, 보이스-

- 영국에서는 토마스 카알라일이 쉴러의 전기를 쓰면서 그를 열정적으로 영국에 소개하였다.

- 쉴러는 동방에서 가장 깊숙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러시아 작가치고 그에게서 자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쉴러가 곧 '우리자신의 시인'이었다."

위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호감이 가는 쉴러는, 수 년 전 풍피두센터의 도서관에서 읽은 요셉보이스의 도록 서문에 쓰인 '쉴러리안'이라는 작가 해설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막연하나마 90년대 말 즈음 현대미술관에서 보았던 보이스의 연극적 행위와 그의 신체행위가 영웅적으로 느껴지도록 찍혀진 카메라의 시각이 생각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시절 현대미술을 이해하고자 읽던 문학비평이나 철학서적들에 언급되었던 쉴러에 대한 기억이 그 호기심을 증폭시킨 것 같다. 90년 대 말 과천 현대 미술관, 그리고 최근에 본 보이스-백남준의 퍼포먼스(베를린-도쿄전, Neue Gallery)에서 그의 소리 내는 행위는 아마도 슈타이너의 소리에 대한 연구에서

영향받은 것일 거라는 추측도 하게 된다. 백남준과 플럭서스 멤버들의 소리에 대한 관심, 존 케이지의 자연음, 이 모두가 슈타이너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슈타이너는 괴테 아카이브 구성을 통해 쉴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내 추측이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 도시를 방문하여 행한 보이스의 대중연설과 '국제 자유대학'의 주창과, 칠판에 행한 강의 내용, 대중연설 등을 작품으로 전시한 것 등의 내용들이 떠올랐다.

보이스의 연극적 요소는 슈타이너를 통해 왔지만 그 뿌리는 쉴러의 연극예술에서 온 것은 아닐까? 나는 자꾸 확신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2. 아버지, 자유

"오늘에 와서 쉴러의 극개념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 규정이 마르크제(<중동구조와 사회 Triebstruktur und Gesellschaft>)의 심리분석적 -마르크스적 문화비판에 있어서 새롭게 현실성을 얻고 있다. 뒤렌마트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 "예술과 자연, 정신과 인생, 이상과 공익등이 쉴러의 사고 대상이었지만, 그는 이념세계로 도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계를 설정하고 견디어냈다. 그는 누구보다도 준엄하게 자유를 간직했지만, 체제보다는 삶을 위해 불꽃을 일으키고자 긴장감을 조성했다. 보편적인 것보다도 더, 국가보다도 더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쉴러는 인간을 찬미했다." 토마스만이 언급하고 있는 바처럼 쉴러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민족의 도덕과 교양, 민족의 영적 자유와 지적 수준을 위한 노력과,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구원의 경외심이 중요하였다."

-독일문학사 p.215 -

국가나 민족보다 인간을 사랑한 쉴러에게서 나는 자유의 본질을 본다. 국민학교 1,2학년 시절 사회에 통용되는 구분이 없는 뚜렷한 직업이 없던, 아버지의 직업란에 쓰던 '자유업' 이라는 단어는 웬지 그냥 가슴 뿌듯한 느낌을 주었다. 구체적 직업이 없다는 실제의

사실과는 별개로 추상적 개념인 자유업은 멋있는 생각으로 느껴진 것이다.

당시 매혹적이던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같은 구체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아버지는 경제적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꽃키우기를 시도하거나, 집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야말로 자유업에 종사하셨다. 한가지 전문업에 종사하지 않을 뿐, 때로는 가족을 위해 흠집을 짓는 노동을 즐기는 것 같은 자유업이 딱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노동을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때문에 셋째누나와 나는 새끼줄에 썬 연탄덩이를 나르곤 하여야 했다.

그는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 근대형 전문직업인이 아니었다. 그는 근대형 전문직업인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젊은 시절 일본에서 운전운 배운 것을 훈련이라 하더라도 그는 전문화된 현대 산업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자유인이었다. 때문에 가족은 생하였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였으나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지 못하는, 사회와 긴장관계로 맞대면하는, 그리하여 사회에 대한 분노심을 끝내 버리지 못한 분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그의 자유정신을 지금도 좋아한다. 어머니에 의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날도 마냥 어항 속의 붕어만 바라보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였다고 한다.

내 생각에 그는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사회 속 인간관계로 파고들 그 방법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사농공상의 유교사회의 이념을 질게 지니고 서구적 개명세계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족 모두에게 자연을 좋아할 수 있는 심성을 심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끔찍한 남북한 전쟁에서 한강을 넘나들며 가족을 지켜내지 않았는가_

극도로 아지네모도를 싫어했고 반짝거리는 모든 인조적인 것들을 싫어했다. 그는 보석도 싫어한 것 같다. 그는 페인트 칠을 싫어했고 니스칠도 싫어했다.

그런데도, 80년대 초 돈암동에 조그만 한옥을 사서 이사한 집 부엌마루는 정성 들여 여러번 니스칠을 해주었다. 부엌마루 청소를 위한 배려이며 가족,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그의 헌신적 노력이었다.

아버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들어있었다. 자신이 손수 짠 탁상의 이중합판 밑에 보관해, 노년에 수년간 가족이 모두 나서다시피 한 주차장 관리를 통해 번 300만원 인가를 내게 유산으로 남겨 주셨다. 나는 그것을 식구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드렸다. 대학원 시절의 일이다. 그동안 나는 대학을 어두운 고민의 그늘 아래 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술도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직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동아미술제에 응모하여 상금을 탄 내용을 보여주었으나,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그 이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경력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나는 지금도 상금을 위해 공모제에 응모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 그림에는 상금에 대해 모질게 집착하는 심리적 공간감이 스며들어 있다. 예술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예술은 자신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다.

쉴러는 이것을 유희로 보았으며, 자유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3. 우정 - A

중학교 1학년 나는 반에서 9번이었고, 동훈이는 10번이었다. 당시 미아리에 살던 나는 현재의 청와대 옆에 있는 학교까지 멀다고 돈암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돈암동(현재의 삼선동 4가) 내가 태어난 조그만 한옥집의 뒷켠에 판자로 이어 덴, 뒷켠방에 큰누나와 따로 살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누나는 나를 위해 같이 있게 된 것이다. 가끔 미아리에 갔다오게 되었다. 집안사정은 어려워졌고 미아리(인수동)에 갔다오면 마음이 무거웠다.

동훈이 부모는 이북에서 내려와, 아마도 서울역 앞 남대문 시장에 벵타이 파는 노점으로 자리잡은 것 같았다. 1960년인가 당시 그의 아버지가 있는 남대문 시장은 그야말로 시장 안의 판대기 위에 벵타이가 어느 정도 놓여있는 말 그대로의 좌판이었다. 내 기억으로 당시의 남대문 시장은 조그만 임시 채래시장 정도로 기억된다.

그의 집도 서울역 앞 남산 올라가는, 당시에는 별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곳이지만, 집 건물은 2층으로 된 흰색 타일의 꽤 넓은 집이었다.

남대문 상권은 아마도 그 당시에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었나 보다. 나보다도 집안의 경제사정이 좋은 그는, 학교 몰래 다니는 퇴계로 아테네 극장비를 자주 도와주었다. 둘은 자주 어울려 극장과 빵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다.

중학교 2학년 때 즈음의 일이다.

당시 시골과 같은 미아리 외딴 곳에서 자란 나는 도시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집안이 아주 기울어 신흥사 근처의 정릉 산동네로 이사간 후, 나는 점차 학교생활이 맞지 않게 되었고, 그와도 점점 멀어져 갔다. 산동네 단칸방에서 7식구가 사는 생활은 나를 자꾸 밖에서 돌게 만들었고, 공부 한답시고 근처의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실에 드나들게 되었다. 어른들의 감시가 거의 없는 당시의 산동네 사립도서실은 거의 무법천지에 가까웠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경제 개발로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사회의 빈틈에 있는 청소년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군사정권의 12시 통금 사회에서 사회의 감시가 거의 없는 밤의 사립도서실 내부는 이성교제가 부자유스러운 남녀의 학생들에게 칸막이 너머로 성의 뉘새를 맡을 수 있는 은밀한 장소였다. 아무런 이유 없는 힘이 난무하였고, 다른 동네에서 온 힘이 없는 모범생들은 12시 너머 밖으로 불려나가 이유 없이 맞고 들어오는 일이 허다하였다.

때문에 어느 날 나도 그 경계 지점에서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놈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안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있는 돌덩이가 순간적으로 가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인과응보였다.

남을 때리면 나도 맞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승욱이와 인X이와 팔구 길을 따라 그들을 뒤쫓았다. 우리는 분산되어 먼저 도착한 승욱이가 고립되어 또 다시 흠에 뒹굴게 되었다.

오래 전 일이다.

나는 그곳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남자들간의 힘의 세계를 터득하였고, 각 개인의 인간성을 터득해 나갔다. 산의 중턱을 깎아 만든 허술한 시멘트 벽면과 노출된 흙 벽 사이의 좁은 틈 속에서 담배 피우기와 주먹질이 오갔다. 그 습한 찌든 청자 담배 냄새와 뻘어진 침 등, 비벼 끈 담배 풍초 흙 냄새가 지금도 나는 듯 하다. 그곳 신흥도서실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저녁이면 많은 애들이 몰려들었고 밤의 정릉 공청 동네를 내려다 보면서 담뱃불을 댕겨대면서 여기저기 때 지어 서성거렸다. 도서실비 조차 없는 산동네 애들은, 혹은 그나마 학비조차 없거나, 교육에 무관심한 가정의 애들은 중학교조차 중퇴한 채 밖에서 친구들을 불러내곤 하였다. 갑자기 동네 친구들이 두 패로 나뉘어진 것이다. 학교에 간 친구들은 형식적이거나 시험기간에 도서실에 갔고, 학교를 그만 둔 애들은 그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동훈이와 나는 소원해져 갔다. 그는 나의 권유로 혹은 그의 자의로 한두 번 정릉에 놀러오기도 하였으나,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그것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공부와 멀어져 가는 나를 그나마 책과 연결 시켜준 것은 소설책들 이었다. 친구들과 소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당시 많은 소설책들을 읽었다. 이곳 베를린에서 지난 달, 그 중의 한 기억이 합쳐진 (<서부전선 이상 없다>) 참호 속 독일군 병사들을 그렸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의 동서독 분단의 안내판들은 그 기억을 되살려 내었다. 그것은 2년 전의 방문의 일이며 이제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다. 인연은 묘한 것이다.

당시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을 이과계로 유도하였다. 대학 입학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 정도가 심한 것을 느끼었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이 쉴러의 문화비판적 성찰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화가 인간으로부터 총체성과 통일성을 앗아 갔으며, 공권력을 갖춘 국가는 인간을 한낱 조작 가능한 객체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이 이처럼 자아가 분리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다시금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어떤 목적으로 인해 자신을 소홀히 하도록 규정될 수 있을까? 이성이 목적하는 바가 있어 우리에게 규정해 놓은 하나의 완전함을 자연이 그 자체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건가? 개별적인 힘들의 형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체성을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그릇된 것임에 틀림없다. 속은 자연의 법칙이 여전히 이러한 방향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술이 파괴해 버린 우리의 자연 속에 있는 총체성을 보다 높은 차원의 예술을 통해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독일문학사 <인간의 미적 교육론 Über die ae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1795) -

3. 우정 - B

동훈이와 나는 이과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나의 적성은 문과에 맞았으나 건축이나 공과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때에는 우열반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당연히 열반에 속했다. 동훈이는 나의 문과적성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나의 그림에 대한 소질도 좋아하였다. 나는 미술반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그것은 단지 특활반 활동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학예제 때 수업 빠지고 포스터 그리는 재미 정도 이상은 아니었다. 아예 예술을 대학에서 공부할 가능성은 학교 전체의 분위기에는 없었다. 대학 갈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둘은 종로 2가에 있는 단과 학원에도 다닌 기억이 있다. 성문 종합영어 같은 종류이었을 것이다.

팝음악이 확산되던 시절 동훈이는 당시 유행하는 팝음악 연주를 배우려고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의 권유로 클래식 기타연주를 배우기도 하였다.

점차 학교 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나를 그는 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듯하다.

우리들의 감성은 사춘기의 그것으로 예민하게 발달해가고 있었다. 학원에서 나와 종로 2가 거리를 귀밀머리가 까만 하얀 털썬타 입은 고운 티 나는 여학생을 얼마큼 막연히 따라갔던 기억도 새롭다.

어느 날 당시 처음 보는 흰 색 폴로 셔츠를 입고 온 그에게서 하나 더 구입해 입은 기억도 그러하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가게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그는 전쟁을 통해 북에서 내려와 노점으로 시작해 자식을 키운 보수적인 상인 집안의 분위기에서 정신적으로 갇혀 있었고, 나는 자유로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는 집의 장남으로 정직하고 유순한 감성과 숭고한 무엇인가를 추구 하는 정신을 지녔었던 듯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공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를 거쳐 해양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영국유학을 가서 조력 발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하였다. 또한 전문등산가로 영국에서도 혼자 산을 등반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히말라야에서 엽서를 보내 화가가 보아야 하는 풍경이니, 이곳으로 오라고 그 감회와 우정의 권고를 보낸 일이 있다. 최근에 정영목 선생이 동훈이란 친구를 아느냐고 물어와 '세상이 좁다'란 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정선생은 그의 최근 근황을 알려 주었다. 그는 현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을 가야한다는 사회의 통념과 어머니의 지극한 믿음 속에, 혹은 어린 시절 보였던 공부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 삭막한 정릉의 산동네에서 세월을 헛보내고 있던 나의 정신은

막막하고 피폐해져 갔다. 하루하루의 생활은 후회와 절망적인 나날이었다.

하루종일 친구들과 잡담과 놀음 등으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파른 산동네 집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무겁고, 부모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의식으로 짙 차 있었다. 저녁이 되면 후회가 땅거미 내려 앉았다. 부모님 모두 한 마디의 질책도 없었다. 아마도 그 믿음 때문에 훗날 다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거의 나의 뜻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러한 자식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러한 모성은 대지와 자연에 대한 불가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자비와 자애의 영향에 젖어있던 그 믿음과 길을 같이 한 것으로 추측한다.

어쨌든 나는 대학을 통해 그림의 세계로 나아갔다.

"이러한 교육적인 역할을 바로 미적인 것이 수행하는데, 왜냐하면 문화로 인해 야기된 자연과 정신, 이성과 감각 사이의 대립을 오직 예술만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자신을 우선 미학적으로 교화시키는 일만이 감각적인 인간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미학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비로소 자신 속에 있는 모순된 힘들을 극복하게 된다.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가는 유희본능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는데, 유희적인 성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명백히 합목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유희하는 곳에서 만이 인간은 전적으로 인간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학적으로 변화된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서 "혁명"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 독일문학사 p 208 <인간의 미적 교육론> 쉼러 -

그러나 나의 생활습관은 고칠 수가 없었다. 그저 습관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뿐이었다. 성적이 떨어진 나는 부모님까지 불러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사람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태로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습관에 의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친구를 좋아했고, 그들 각각의 서로 다른 특성을 흥미로워 했다.

나중에 영화단역에 출연하기도 했다는 오영이 형 오민이, 그는 군복을 입고 도서실에 쳐들어 와 동생 때린 놈이 누구냐고 물어댔었다. 나중에 80년 서슬퍼런 전두환 계엄사령관 시절 KAL기 납치음모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7년간 복역한, 그리고 목사가 된 수복이, 그는 대학시절 내 모델을 서주기도 했었다. 나는 80년 대학원에 갓 들어간 때였다. 신문에 크게 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 사건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다. 당시 정릉 수복이나 그의 선배들은 비행기를 타본 경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살에 가까운 불행한 죽음의 완종이, 모두가 상식 밖의 일들이었지만 사실로 일어난 일들이다. 나는 그 세계에서 인간의 치부를 배우고 동물적 무리지음을 통한 폭력과 욕설, 성, 놀음과 온갖 20대 전후의 더러운 남성성을 체험했다. 대형이 선배를 따라 흘깃 본 종로의 뒷골목은 핑크빛 전등불 아래 담장과 같은 인간시장이었다. 그들은 후배들을 감시원으로 키워나갔다. 하마터면 우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유리된 사회에 갇힐 뻔하였다. 대형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은 그 일이년 후의 일이다. 치명적인 도덕적 실수였다.

나는 도덕적으로 갇힌, 10대의 방종 속에서 우범지대를 들락거리는 예비범죄의 음모 속에서 비밀스런 자유와 60년대 말 가속화 되는 경제발전의 외곽지대에 있었다. 나는 자유당 정치 폭력의 영향권에 있었던 예비병들의 동생뻘들과 어울렸다.

정릉 공청 주변은 그런 곳이었다. 지금도 행롱이는 그 계보를 줄줄이 외우기를 즐겨 한다.

나는 그 세계와 소설의 세계를 구분 못한 채 습관적으로 장편, 단편 소설을 읽어댔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갔다. 그것은 소설의 성격 묘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무수하게 많은 싸구려 삼류 영화를 보았다. 거의 바닥에 가까운

성적을 가지고 본 대학 시험은 그 결과가 뻔하였다. 첫째는 서울대 사범대 물리학과를 떨어지고, 재수를 통해 본 고대 사회학과, 성균관대 심리학과(?)를 연거푸 떨어졌다.

국민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간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군대를 빨리 갈 수 밖에 없었다. 동훈이와는 재수를 하는 중에도 가끔 연락하여 만나곤 하였다. 교복을 벗고 사회에 나선 학교 밖에서의 만남은 서로 약간 어색하였고, 공대에 들어간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위로하곤 하였다. 하면서도 가끔 건설하지 못한 나의 옷차림에 대해선 가끔 나무라는 투의 말을 하곤 하였다. '야 그게 뭐냐 양아치같이.' 이런 식이었다. 그는 당구를 치고 맥주를 마시지만 건설한 대학생의 자세이었으며 나는 예민하고 감각적인 멍들어가는 한 젊은이었다. 내 마음은 쓰렸다. 언제나 패배자 같은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결국에는 증명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지금도 대학이라는 현실적 체제에 대하여 당시의 친구들을 대신하여 반감을 갖고 있다. 지금 이곳에서 생각해 보니, 오늘날 대학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인물을 키워 내느냐는 아직도 체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 치하에 있었다는 사실과 아직도 많은 북한인들이 독재 하에 있으며, 많은 민주국가 형태의 국가에서조차 인간의 형성은 쉐러의 자유정신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구의 모더니즘 자체가 이 자유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의문해 볼 일이다.

그보다 쉐러는 그것을 예감했다.

많은 기능적인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대학의 목적인가? 대학에서의 인간의 교육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않는가?

요셉 보이스는 자신의 교실에 입학 허가가 나지 않은 학생조차도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국제 자유대학을 꿈꾸었으며 일시적으로나마 대학의 체제를 부정하였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 문제는 대학을 못들어가며 방향한 예민한 시절의 상황을 통틀어 의심하게 만든다.

3. 작가약력

서용선(徐庸宣)

1951 서울 출생

주요 개인전

- 2011 <시선의 정치>, 학교재 갤러리, 서울
- 2010 <서용선의 풍경화>, Lee C 갤러리, 서울
<Men in the History>, 갤러리604J, 부산
<6 DownTown>, Kips Gallery, New York
갤러리 이마주, 서울
- 2009 <2009 올해의 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경기도
<미래의 기억>, 박수근미술관, 양구, 강원도
후쿠즈미갤러리, 오사카, 일본
<산(山) · 수(水)>, Lee C 갤러리, 서울
- 2008 갤러리 A Story, 서울, 부산 고도갤러리, 서울
부산 아트센터_김재선 갤러리 기획, 부산
외 다수

주요 기획전

- 2010 <눈 위에 핀 꽃 _분단미술>, 대전시립미술관
<In and Out _Contemporary Korean Art>,
Cantor Fitzgerald Gallery Haverford College,
Philadelphia, USA
<한국드로잉 30년_1970 ~ 2000>, 소마 미
술관, 서울
<OFF the Wall : 건축도자, 경계에서>,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경상남도
<강진 청자아트프로젝트>, 강진청자박물관,
도예문화원, 강진, 전라남도
<철암 그리기 100회 기념전_거기. 철암
그리고 태백>, 철암갤러리
<노란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겸재 '화혼' 전-개관1주년 기념전>,
겸재정선기념관, 서울
<선화랑 개관 33주년 기념전>, 선화랑·선
아트센터, 서울

- <한국현대미술의 역사의식 :영원한 압박임>,
하와이 대학미술관, 하와이
<이와미 국제 미술전-토토리현의 사람과 자연'
도토리현이와미사무소>, 이와미 온천구 Studio
652, 이와미역, 일본
- 2009 <신호탄>, 현대미술관 서울분관예정지, 서울
<트라이앵글 프로젝트_ 제3프로젝트>, 청주
<베를린 장벽붕괴 20주년 기념 이벤트>,
부란덴 부르그문 광장_베를린
- 2001- 철암 그리기(폐광지역 문화 활동) 진행 중
e-mail: seoyongs@snu.ac.kr